

한·일, 한·중 통화 스왑 확대와 그 시사점

윤덕룡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오승환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위원 (ohsh@kiep.go.kr, Tel: 3460-1228)

차 례 ●●●

1. 한·일, 한·중 통화 스왑의 주요 내용
2.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효과
3. 향후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통화 스왑 규모를 7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중 300억 달러는 원-엔 스왑으로, 400억 달러는 원-달러 스왑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을 1년으로 합의함.
 - 이번 통화 스왑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에도 엔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 10월 26일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 체결한 원/위안 통화 스왑 규모를 3,600억 위안/64조 원(700억 달러 상당)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기한을 3년으로 합의함.
 - 한·중 간 통화 스왑 역시 위안화를 달러화로 교환 가능하므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중기적 금융안정 및 환율협력, 자국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등 양국간 금융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 한·일, 한·중 간 통화 스왑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상대국가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화폐를 받아오는 방식이며, 달러화 혹은 달러화로 교환 가능한 외환을 공급받게 되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됨.
-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 통화 스왑의 상용화(常用化), 정부 부문의 외환수급 역량을 민간에 연결하는 채널 확보를 추진해야 함.
- ▶ 한·중, 한·일은 한국을 매개로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 스왑을 3국간 스왑으로 연계하면 향후 자국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에 기여할 수 있으며, 3국간 통화의 상호유통시스템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및 위안화의 지역적 국제화와 3국간 부분적 통화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한국 외환시장의 대표적 불안요인은 모두 외환 공급역량에 대한 제약이 근본 원인이므로 통화 스왑은 이러한 잠재적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 향후 추가적으로 한·미 통화 스왑 상설화 및 규모 확대를 통해 단기적 수급불안 외에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인 북한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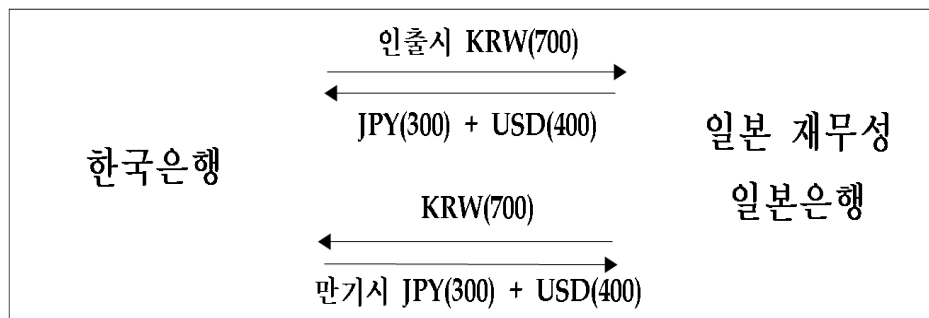
1. 한·일, 한·중 통화 스왑¹⁾의 주요 내용

가. 한·일 통화 스왑

-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30억 달러 수준이었던 통화 스왑을 7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함.
 - 이번 통화 스왑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한·일 통화 스왑은 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국 화폐인 원-엔 및 미 달러화로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전의 통화 스왑 규모였던 130억 달러는 원-엔 스왑 30억 달러와 CMI 통화 스왑인 달러-원/엔 스왑 100억 달러로 구성되었음.
 - 새롭게 체결된 통화 스왑은 원-엔 스왑을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달러-원/엔 스왑 규모도 기존의 CMI 통화 스왑 100억 달러 이외에 추가로 300억 달러를 확대함.
- 한국이 한·일 통화 스왑 자금을 인출한다면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를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엔화와 미화 400억 달러로 교환할 수 있음.
 - 반대로 일본의 경우,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엔화를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와 미화 400억 달러로 교환할 수 있음.

그림 1. 한·일 통화 스왑을 통한 한국 인출 시 스왑 구조도

(단위: 억 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1) 국가간 통화 스왑이란 양국간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화폐와 상대국의 화폐를 교환하고 정해진 기간 후에 최초 계약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함.

■ 새롭게 체결된 한·일 통화 스왑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한·일 통화 스왑의 특징:

- ① 엔화 스왑과 달러화 스왑의 분리: 통화 스왑은 자국통화 간 교환이 원칙이나 한국의 실질적 외환수요가 달러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원-달러 통화 스왑을 명기하였으며, 일본은 달러화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일본 엔화의 절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② 통화 스왑 기간을 1년으로 단기화: 연장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을 1년으로 단기화한 것은 양국간 협력이 중장기적인 금융협력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에 대비한 협력임을 시사함.
- ③ 환율의 비공개 혹은 비확장: 통화 스왑 시 어떤 환율을 정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교환환율은 실제 스왑을 활용하면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 통화 스왑이 평시 활용보다는 위기 대비용임을 반영하고 있음.

■ 평가

- 한·일 통화 스왑은 양국간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의 큰 진전임에 분명하며,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win-win) 협력이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제도의 도입 및 환율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기반이 될 것임.
- 단기적 위기 대비용 특성의 극복과 규모 및 기간의 확대 등 협력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한·중 통화 스왑

■ 10월 26일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 체결하였던 원/위안 통화 스왑 규모를 3,600억 위안/6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음.

- 한·중 간 통화 스왑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한·중 통화 스왑은 2009년 4월에 유효기간 3년으로 체결하였던 원/위안 통화 스왑 계약을 조기 종료한 후, 규모를 확대하여 새롭게 체결한 것임.

- 이번에 갱신한 통화 스왑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중앙은행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연장이 가능함.

■ 따라서 한국이 한·중 통화 스왑 자금을 인출할 경우, 한국은 64조 원과 3,600억 위안을 교환할 수 있음.

- 반대로 중국의 경우 3,600억 위안과 원화 36조 원을 교환할 수 있음.

그림 2. 한·중 통화 스왑을 통한 한국 인출 시 스왑 구조도

(단위: 억 위안, 조 원)



자료: KIEP.

■ 이번 통화 스왑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양국 중앙은행은 스왑 통화를 활용하여 준비통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및 규모를 검토하기로 합의함.

- 지난 2008년 통화 스왑 과정에서도 스왑 통화의 준비통화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 도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스왑 통화를 준비통화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대국 통화를 상시적으로 일정수준 보유하도록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양국이 상대국 통화의 상시적 보유 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자국통화 결제, 환율협력 등에서는 반드시 필요함.

■ 한·중 통화 스왑의 특징

- ① 3년 기한의 중기적 금융협력: 통화 스왑은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불일치 시 이를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으로 시행되는 통화공급 방식인데, 이를 3년 기한으로 한 것은 한·중 통화 스왑이 중기적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② 환율고정을 통한 환율협력: 통화 스왑은 교환 시 환율로 재교환되므로 사실상 시장환율 변동에 의한 영향이 없지만 3년간 동일한 환율로 스왑 계약을 할 경우 시장에 대한 신호적 기능이 가능함.
- ③ 통화 스왑 상설화의 기반: 3년 중기 통화 스왑은 향후 통화 스왑의 상설화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석이 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화 스왑을 상설화해도 무리가 없음.

■ 평가

- 원/위안 간 통화 스왑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 수요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필요 시 협의를 통해 해당 위안화 규모에 상응하는 달러화로 교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면, 한·중 통화 스왑을 활용해 자국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
- 한국이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보유하고, 중국이 원화를 준비통화로 보유할 경우 양국 통화가치 안정에 상호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자국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시 양국 통화 스왑은 상설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양국 통화를 모두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 통화 스왑은 이러한 중장기적 협력에 부합함.

2.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효과

- 한·일, 한·중 간 통화 스왑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상대국가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화폐를 받아오는 방식이며, 달러화 혹은 달러화로 교환 가능한 외환을 공급받게 되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됨.
 - 이번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왑은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임.
- 한·중·일 3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들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왑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신뢰성이 높은 자금조달 창구를 확보한 것과 같음.
 - 중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의 외환보유 국가이며, 9월 말 현재 두 국가의 외환보유액을 합치면 4조 4천억 달러 수준임.
 - 현재의 통화 스왑이 정책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유사시 증액 가능성을 고려하면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국가적 창구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3,034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는 만큼 외환부족 때문에 통화 스왑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으나, 유사시 필요한 외화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율안정과 외화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게 됨.
 - 비록 통화 스왑 협정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번에 갱신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추가협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표 1.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2011년 9월 말 현재)

(단위: 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2,017 (-608)	6.	브 라 질	3,497 (-37)
2.	일 본	12,006 (-179)	7.	인 도	3,115 (-77)
3.	러 시 아	5,168 (-282)	8.	한 국	3,034 (-88)
4.	대 만	3,892 (-111)	9.	홍 콩	2,777 (-19)
5.	스 위 스	3,724 (-107)	10.	싱가포르	2,336 (-156)

주: 잔액 기준, () 안은 전월말 대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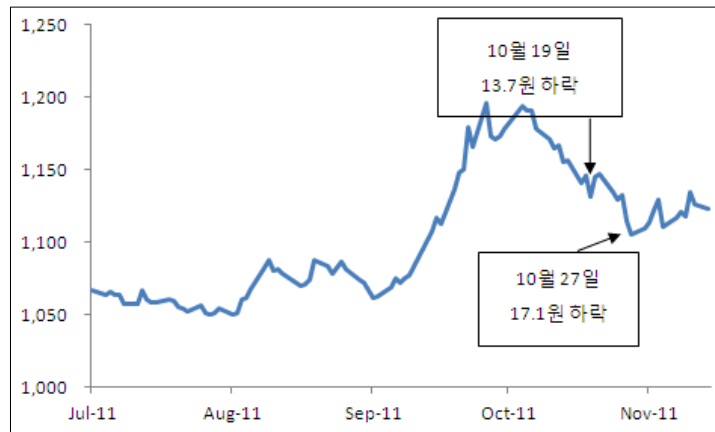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한도금액 역시 이미 크게 확대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협력을 통한 외환 시장 안정의 주요 인프라를 확보한 성과로 판단됨.

■ 이번 한·일, 한·중 통화 스왑 발표 이후 환율하락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9일 13.7원, 27일 17.1원 하락함.

- 지난 2008년과는 다르게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화자금 경색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환율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으나 시장에서 환율하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됨.

그림 4.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10월 초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던 한국의 CDS 5년물 금리는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한·일, 한·중 통화 스왑 역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CDS 프리미엄 하락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5.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 또한 좀 더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 완화와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 국제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급격한 환율상승을 보였으나,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통화 스왑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의 주요 형태가 됨.
 -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FRB의 통화 스왑 대상국가에 편입됨에 따라 외환유동성 부족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실제로 미 FRB와의 통화 스왑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스왑 체결 자체만으로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함.

그림 3.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향후 전망 및 정책 시사점

가. 외환시장의 변동성 감소

- 한국은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도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 발생 시 가장 높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시경제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 내 경제주체가 거래시점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이번 한·중, 한·일 간 통화 스왑 확대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통화 스왑이 외환시장의 변동성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한·일 간 통화 스왑에 포함된 원-달러 스왑 환율을 사전적으로 고정하여 위기 시가 아니더라도 상시적 수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화 스왑의 상용화(常用化)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중 통화 스왑의 경우에도 현재 원-위안화 간의 통화 스왑만 구체화되어 있으나 달러화 스왑에 관한 점을 명시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달러 조달 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화 스왑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공급이므로 정부 부문에서 확대된 외환확보 역량이 외환시장에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변동성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임.

■ 위기 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화조달 자금창구는 통화 스왑 이외에도 IMF와 CMI 등이 있으나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통화 스왑이 낮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수단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 IMF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IMF 자금 이용이 외환수급의 곤란을 시사하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오히려 기피하는 정책수단이 됨.
- IMF 자금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조건으로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시의 경험으로 인해 IMF의 자금 활용에는 부정적인 심리와 비판적 여론이 많음.
- CMI의 경우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92억 달러이며, 그 중 80%는 IMF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이 활용하기에는 규모도 충분하지 않고 IMF 자금도입과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통화 스왑은 외화조달 창구확대에 따른 위기 예방적 기능이 있으며, 활용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어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임.

나. 한·중·일 금융협력의 기반 확보

■ 한·중, 한·일은 한국을 매개로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 스왑을 결성하였으며, 통화 스왑은 일차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나 향후 자국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현재의 양자간 통화 스왑을 연계하여 한·중·일 3국간 통화의 상호유통시스템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및 위안화의 지역적 국제화와 3국간 부분적 통화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과의 통화 스왑으로 중국과 일본은 평가절상 압력완화에 도움을 받고, 한국은 외환수급 불안으로 인한 단기적 환율상승 압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향후 3국의 대외환율 불안에 대한 공동대응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경우 3국의 외환공급 역량으로 볼 때 역내 환율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원화와 위안화는 통화가 국제화되지 않고 있어서 용도가 제약적이거나 한·중·일 간 결제통화로 활용하고 일정규모 내에서 상호 유통하다가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면 지역적 국제화(regional internationalization)를 이룰 수 있으며 통화국제화의 리스크도 제한할 수 있음.
- 한·중·일이 상기 단계별로 협력을 진전할 경우 단일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동통화가 제공하는 이득, 역내 환율안정, 대외 환율안정,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 대외 협상력 및 국제적 영향력 제고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임.

-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주요 상대국으로, 이러한 주요 대외거래 상대국들과의 통화 스왑 지속은 국제거래의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로 작용하여 3국간 교역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음.
- 3국간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자국통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 달러화 및 대외통화에 대한 의존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화 스왑 필요시 상대국 통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
- 한·중·일 간 경제협력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3국간 교역규모와 금융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역내 금융불안 요인 축소

- 한국 외환시장의 대표적 불안요인은 통화의 비호환성으로 인한 외환수급에 따른 일방적 환율결정이며, 잠재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 급변사태 가능성을 들 수 있음. 이는 모두 외환 공급역량에 대한 제약이 근본 원인이므로 통화 스왑은 이같이 예상 가능한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하는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은 중국 및 일본과의 통화 스왑을 시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만 보완하면, 한국의 평상시 외환 보유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 달러화만이 아닌 원 엔 위안을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스왑은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통화 간의 환율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북한 요인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유사시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미 간 통화 스왑 추진이 필요함.

라. 향후 정책방향

- 한·중, 한·일 간 통화 스왑의 상시화 및 규모의 무제한화 추진
- 현재 중국과는 3년, 일본과는 1년으로 통화 스왑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통화 스왑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통화 스왑을 통한 외환공급이 단기적 거시경제적 불안요인 극복을 위한 협력에서 금융협력 기반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협력의 중장기적 안정화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통화 스왑 기간의 중장기화가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기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모도 점차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호간 신뢰가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중·일 간 공동 통화 스왑 추진

- 현재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양자적 통화 스왑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연계하여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성격의 통화 스왑을 체결한다면 3국간 금융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한·중·일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사무국을 서울에 설립하여 3국이 하나의 협력단위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으므로, 3국 모두에 중요한 현안인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력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3국간 통화 스왑을 연계하여 협력의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간 ‘통화 스왑-환율협력-자국통화 결제체제 도입-3국간 통화국제화 추진’ 등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국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금융협력을 통해 실물분야 경제협력을 추동하고, 동아시아 및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협력을 3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통화 스왑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미 통화 스왑의 상시화 및 규모 확대 추진

- 한·미 통화 스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미국의 달러화 발권력으로 인해 외환시장 안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협력 사안이 됨.
- 2008년 당시 한·미 통화 스왑은 규모가 30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필요시 그 확대 가능성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보증 기능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므로, 일단 적은 규모라도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상시화할 수 있다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통화 스왑은 북한으로 인한 외환시장 리스크가 커질 경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측할 수 없는 대북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평화 시라 할지라도 한·미 간 통화 스왑 유지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임. **KIEP**